

'임실N치즈축제' 교통 대책 호평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 피어나다

군, 교통 대책 수립·교통전문요원 배치 실시간 교통상황 공유 등 체계 개선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 기간 4일간 전국적으로 58만명이 찾아 역대급 인파가 몰렸지만, 교통 관리가 잘된 축제로 호평받고 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10주년 임실N치즈축제는 4일간의 축제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해 축제장을 찾는 차량이 크게 증가,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 축제로 기록됐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 기간 4일간 전국적으로 58만명이 찾아 역대급 인파가 몰렸지만, 교통 관리가 잘된 축제로 호평받고 있다.

이런 와중 눈에 띄는 것은 예년 축제 때마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축제장 일대 도로의 차량 정체, 주차난, 셔틀버스 장시간 대기 등의 교통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실제 군은 올해 축제를 앞두고, 심민 군수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설상회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원활한 교통 대책 수립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경제교통과 직원 인력 배치 개선 등 철저한 교통 대책을 세우는 데 만전을 기했다.

특히 임실IC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임실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행사 기간 출동한 임실경찰서 및 전북경찰청에서 4일간 72명의 기동대의 협조는 축제를 더욱 빛나게 했다.

군은 축제장 주변에 10곳의 주차장(3,833대)을 완비하고, 셔틀버스 운영,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일시적 차량정체에 대비한 예상 시뮬레이션, 경제교통과 직원들을 분산 배치해 교통상황을 실시간 공유토록 하는 시스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축제 교통 관리 경험이 많은 100여 명의 교통전문요원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상습 정체 지역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입구를 완벽하게 관리했으며, 막히는 구간이 있을 때마다 출동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다.

갈마제철창고 주차장(832대)의 경우 축제 기간 임실 시가지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곳에서 모든 주

차장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각 주차장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셔틀버스 승하차장에 기존 인원과 함께 교통전문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승하차장 질서유지를 했으며, 실시간으로 상호정보를 공유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했다.

축제장을 찾은 많은 차량들을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으로 분산할 수 있었으며, 셔틀버스가 필요한 주차장으로 즉각적으로 셔틀버스가 갈 수 있도록 증계했다.

특히 최다 인파가 몰린 첫째 날과 셋째 날에는 임실IC 진입 인근 고속도로가 600미터 이상 밀린 상황에서, 이를 보고받은 심 민 군수가 신속히 오수IC로 차량을 임시유내 주차장으로 유도토록 지시하는 등의 실시간 상황 보고에 따른 교통판단력도 주효했다.

심 민 군수는 "축제 기간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의 시민의식과 군과 경찰서, 특히 올해부터 파견된 전북경찰청 기동대 등의 맞춤형 교통협조로 큰 사고 없는 성공 축제를 만들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욱 완벽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18~20일 '문화의 달 행사' 광한루원 일원서 개최

남원시는 '대한민국 문화, 남원에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한국 대표정원인 광한루원 일원에서 '2024년 문화의 달 행사'로,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명인·명창들의 가무악(歌舞樂) 전통 공연이 펼쳐진다.

남원은 예로부터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홍보가의 배경이 되는 한국 국악의 성지이면서 고도의 역사문화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국악대전'의 개최지로서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명인·명창들을 배출하였으며, 남원시립예술단, 국립민속국악원 등 국악 유산도 풍부한 도시이다.

18일 오후 2시에 김수영 명창과 국립민속국악원의 기악 중주·무용·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오후 6시 기념식에는 남원을 대표하는 왕기석, 이난초 명창의 환영의 판소리 맞이공연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조선하, 채원영, 고은정, 최영란 명창의 국악 공연이 있으며,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1시에는 송가영, 정소정, 임현민 명창이 남원의 혼과 예술을 가무악으로 피어나게 한다.

또한 18~19일 오후 3시(2회)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는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 이야기를 재미들의 관점에서 풀이한 해학과 재치가 넘치는 무장에 창극(izzi)가 무장

에(Barrier-Free) 공연으로 선보인다.

19일과 20일에는 소리꾼들이 자신의 기량과 능력을 평가받는 자리인 제32회 강도근 전국 판소리고백경연대회가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연계 공연으로 개최되며, 19일 오후 4시에는 흥보가 완창 발표대회가 예정이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도 20일 오후 4시에 전통 음악의 맥을 잇는 공연으로, 사물놀이 연희단 청연, 아쟁 서영호, 판소리 장문희, 대금 오경수, 장단 김경태, 남원시립청소년국악단이 출연하여 문화의 달 소리여행을 선사한다.

남원은 예로부터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이자 춘향가·홍보가의 배경이 되는 한국 국악의 성지이면서 고도의 역사문화가 있는 지역이다. 또한 국악 분야 최고 등용문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국악대전'의 개최지로서 대통령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명인·명창들을 배출하였으며, 남원시립예술단, 국립민속국악원 등 국악 유산도 풍부한 도시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문화의 달 행사 기간 남원 곳곳에서는 전통 가무악이 울려 퍼져 행사장을 찾는 관객들이 수준 높은 명창들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통예술의 뿌리인 국악의 본 고장 남원을 느끼는 축제가 되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의회, 10월 의회 행정 정례간담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8일 의회 회의실(1F)에서 의원과 집행부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중 의회·행정 정례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주말에 성공적으로 마친 '2024 임실N치즈' 축제기간 동안 출현수범해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회에서 마련한 민원상담소를 통해, 버벌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등 의회와 행정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34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를,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및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안,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안, 관촌 공공입주주택 건립(변경) 계획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검토하고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어른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남원시는 오는 11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지역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으나, 타 지역 주소인 경우 주소지에 따라 접종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문의하고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도 24일부터 가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64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명서류(복지카드 등)를 지참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진료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시설원에 '우수지자체' 선정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시설원예사업 평가에서 시·군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스마트농업 분야 우수 도시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남원시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남원시는 시설면적 973ha, 온실재배 농가 수 2,181명으로 최고 수준의 시설원예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ICT융복합 지원, 시설원예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연100억원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며 스마트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농가에 기술보급 및

스마트팜 단지 구축, 현장 소통을 통한 농업인들의 불편 사항 해소로 기술지도 협업이 우수한 성적을 기여했다.

김연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에 국비 인센티브를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며 "스마트팜을 실현해 나가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복분자·고구마 조직배양묘 생산 성공

순창군이 지난 8일 첨단 조직배양시설을 활용해 복분자와 고구마의 우수묘목 생산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조직배양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일반 묘목을 뛰어넘는 성장력과 수확량을 자랑하는 고품질 조직배양묘 생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순창군 복분자 농가들은 연작으로 인한 토양 악화, 병해충 증가 등으로 작물의 고사율이 높아지고 재배 기간이 단축되는 등 생산성 저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분자 조직배양묘 자체 생산 기술 체계를 정착시켜 복분자 조직배양묘 안정 생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묘목이 본격 보급되면 복분자 농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구마 품종 분야에서도 순창군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 '소담미', '진율미', '호풍미', '호감미', '통채루' 등 5가지 국산 품종의 조직배양묘를 생산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고구마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각 품종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 고구마 생산의 토대를 다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촌사랑 동행순창' 맞손

순창군·남부대, 도농교류 활성화 협력

순창군과 남부대학교가 지난 8일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을 체결하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부대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조준범 남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남부대학교 교직원과 산학협력단의 연구·워크숍 등의 순창투어를 통해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인구를 늘리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더 나아가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부대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조준범 남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남부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순창군의 도농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인구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